

# 80年度 日本石油業界 財務分析

日本石油業界는 작년도에 79년도를 상회하는空前의 好決算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주로 円貨의 상승에 힘입은 것으로 換差益을 뺀 収益의 실태는 오히려 악화됐다. 油類소비감소와 円貨 가치하락의 더블펀치로 石油会社의 실적은 위기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財務體質이 취약한 데다가 환율 및 금리등의 외부요인의 변화가 収益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 前年度決算에서는 이것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석유정제업에 해당되지 않는 日瀝化学工業이나 日鉄化学工業을 포함한 石油 13社의 使用總資本經常 利益率は 4.05%로 전년도에 비해 1.26포인트나 상승함으로써 石油危機이후 최고수준을 보였다.

그것은 前年度에 円貨의 상승으로 多額の 換差益이 생겼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日本 최대 정유회사인 日本石油를 보더라도 81년 3月期の 경상이익이 1천37억 円으로 처음으로 1천억 円綫을 넘어 섰는데 이것은 6백70억 円에 이르는 換差益이 기여한 결과이다.

그러나 판매실적은 省에너지에 따른 수급 완화와 판매부진으로 악화되었다. 前年度의 使用總資本營業利益率は 4.66%로 79년도에 비해 4.5 포인트가 떨어졌으며, 또 제품의 採算性を 말해 주는 매출액 原価率을 보더라도 前年度에 93.57%로 79년도에 비해 1.82 포인트가 악화되었다. 지금까지의 換差益이 差損으로 바뀐 81년도는 제품의 채산성 악화

売出額原価率(%)

順位	会社名	80年度	79年度
1	東 亜 石	61.4	94.7(13)
2	日 瀝 化	64.4	62.6(1)
3	日 日 鐵	85.2	80.9(2)
4	日 精 蠟	87.6	81.3(3)
5	日 昭 和	92.1	89.6(8)
6	日 精 蠟	92.5	91.0(9)
7	日 日 鐵	92.9	92.9(11)
8	日 大 協	93.3	92.8(10)
9	日 東 亞	93.4	93.1(12)
10	日 興 亞	93.6	85.9(4)
11	日 富 士	93.9	87.2(5)
12	日 三 菱	94.5	87.5(6)
13	日 丸 善	96.4	89.1(7)

売出額純金負債率  
(%, ▲은 受取超過)

順位	会社名	80年度	79年度
1	日 瀝 石	▲0.05	0.24(3)
2	日 瀝 化	0.00	▲0.15(1)
3	日 精 蠟	0.87	0.05(2)
4	日 東 亞	1.65	1.29(4)
5	日 大 協	2.43	1.75(5)
6	日 日 鐵	2.78	3.99(12)
7	日 昭 和	2.80	1.92(6)
8	日 三 菱	3.24	2.33(7)
9	日 日 鐵	3.24	3.42(11)
10	日 興 亞	4.76	3.17(9)
11	日 興 亞	4.95	3.21(10)
12	日 富 士	5.51	4.42(13)
13	日 東 亞	31.20	3.10(8)

自己資本比率(%)

順位	会社名	80年度	79年度
1	日 瀝 化	55.76	55.12(1)
2	日 東 燃	21.03	21.24(2)
3	日 日 石	15.90	10.61(5)
4	日 精 蠟	13.88	14.91(3)
5	日 精 蠟	13.06	13.48(4)
6	日 興 亞	9.86	7.66(7)
7	日 日 鐵	8.48	9.55(6)
8	日 昭 和	6.77	6.36(8)
9	日 三 菱	6.23	5.92(9)
10	日 富 士	4.79	5.37(11)
11	日 大 協	4.76	5.43(10)
12	日 東 亞	2.28	0.69(13)
13	日 丸 善	0.17	2.42(12)

売出額經常利益率(%, ▲은 欠損)

順位	会社名	80年度	79年度
1	日 瀝 化	11.54	10.57(1)
2	日 東 燃	5.46	1.90(7)
3	日 興 亞	3.88	5.59(2)
4	日 精 蠟	3.36	3.08(4)
5	日 東 亞	3.33	0.50(10)
6	日 日 石	3.02	1.45(9)
7	日 昭 和	2.46	5.21(3)
8	日 昭 和	2.33	0.43(11)
9	日 日 鐵	1.76	2.85(5)
10	日 三 菱	0.86	1.63(8)
11	日 大 協	0.59	▲0.66(13)
12	日 富 士	0.05	2.08(6)
13	日 丸 善	▲1.67	0.06(12)

借入金依存度(%)

順位	会社名	80年度	79年度
1	日 瀝 化	9.8	8.0(2)
2	日 日 石	12.3	15.3(3)
3	日 精 蠟	35.7	5.8(1)
4	日 東 亞	36.1	39.3(4)
5	日 三 菱	50.8	50.3(6)
6	日 日 鐵	52.3	57.6(7)
7	日 昭 和	52.4	50.3(5)
8	日 日 鐵	60.3	60.1(8)
9	日 大 協	60.5	60.5(9)
10	日 日 鐵	63.8	63.6(11)
11	日 興 亞	64.3	62.1(10)
12	日 富 士	74.4	77.9(12)
13	日 東 亞	88.6	83.8(13)

従業員 1人当營業利益  
(10万円 ▲은 欠損)

順位	会社名	80年度	79年度
1	日 日 石	296.9	195.9(7)
2	日 東 燃	259.8	166.9(8)
3	日 興 亞	211.1	365.6(1)
4	日 東 亞	184.5	255.8(3)
5	日 精 蠟	184.3	347.4(2)
6	日 大 協	129.2	10.4(13)
7	日 昭 和	125.5	114.3(9)
8	日 富 士	97.0	204.6(5)
9	日 瀝 化	52.2	38.7(10)
10	日 日 鐵	29.4	29.3(12)
11	日 精 蠟	27.7	37.0(11)
12	日 三 菱	1.7	250.7(4)
13	日 丸 善	▲23.4	199.1(6)

에도 박차가 가해져 상반기에는 모두 經常欠損을 면치 못할 것 같다.

한편 換差益에 힘입은 재무체질은 취약하기 마련이다. 前年度의 자기자본비율은 9.15%로 79년에 비해 1.15포인트가 개선되었으나 石油危機 이전인 72년도의 15.04%를 크게 밑돌고 있다. 原油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달려債務가 크게 늘어남으로써 借款過多體質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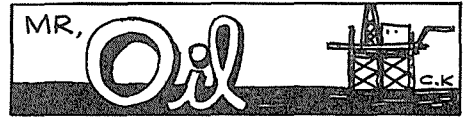
石油会社の 各収益·재무지표를 Ranking別로 보면 기업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값싼 사우디 아라비아原油의 의존도가 높은 아람코系会社와 非아람코系会社의 収益力과 재무내용의 차이가 점차 커지고 있다.

예를 들면, 収益力을 말해 주는 대표적 指標의 하나인 매출액경상이익율을 보더라도 東亞燃料工業, 興亞石油, 제너럴石油, 日本石油등 아람코系 4社가 상위권에 들어 있는데 반해 昭和石油, 三菱石油, 大協石油, 富士興産, 丸善石油등의 非아람코系会社는 계속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다. 東亞石油의 경우는 원유의 委託精製業으로 전환하여 다른 석유업과는 형태를 달리하고 있으며, 이것이 上位진출로 연결되고 있다.

이익의 蓄積差를 말해 주는 자기자본 비율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로이다. 석유정제와 판매업의 首位는 여전히 東亞燃料工業이 차지하고 있다. 同社의 경우, 재고평가를 原油價格의 상승이 직접 코스트상승으로 영향을 미치는 後入先出法을 채택하여 재고 감소를 꾀하고 있는데 이것이 재무체질강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그 밖에 上位에서 현저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은 日瀝化. 同社は 아스팔트용용 加工品の 생산, 시공회사로 官需用이 主宗을 이루고 있어서 수요가 안정되어 있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乳劑가 순조롭게 신장되고 있어 高収益體質을 유지하고 있다.\*

〈日經産業新聞〉



리더

GRAPHIC DESIGN STUDIO

기획에서 제작까지  
패키지·카드록·카렌다  
판촉물·슬라이드·CIP  
신문잡지광고 265-3201